



오늘의 날씨와 생활 10월 27일 수요일 음 9월 22일 (14물)

건강&생활

기상정보

대체로 맑음



제주는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15°C, 낮 최고기온은 20-22°C로 전망된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the day, including precipitation and wind speed.

Table with sunrise/sunset times, moon phase, and other astronomical data.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Table with daily weather forecasts for the next few days.

미세먼지 (PM10)

Table with air quality forecasts for PM10 and PM2.5.

월드뉴스

“백신 접종 완료 직원 230만원 보너스”

미국 코카콜라 백신 접종 유도

미국 행정기관과 기업체 등 곳곳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코카콜라...



한 슈퍼마켓에 진열된 코카콜라.

증명해도 마찬가지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코카콜라의 이 같은 조치는 인센티브를 통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코카콜라는 연방정부 백신 접종 기준을 따르는 이유에 대해 “우리는 국립공원, 박물관, 정부청사, 그리고 미군 기지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늙어감의 기쁨



이 소 영

미국 메릴랜드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나이 들, 늙어감, 혹은 노화. 우리나라 말로 노인학으로 소개된 이 분야는...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노인’이라 일컬어지는, 대략 만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존재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노인’이라 일컬어지는, 대략 만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존재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늙어감의 기쁨

6000년 정도의 인류 문명의 역사의 대부분, 지구에는 지금처럼 많은 사람이 살지 않았다. 15세기까지만 해도 4억명가량에서 정체돼 있던 인구는 18, 19세기를 거치며 급격히 불어났는데, 20세기 초 15억명 정도에서 지난 100여 년 간 네 배로 늘었다.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노인’이라 일컬어지는, 대략 만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존재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다. 어린이, 청소년, 20-40대의 성인이 인류 역사의 유구한 시간동안 존재해 왔지만, 노인이야말로 인류 역사가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라는 점, 이것이 나옴엔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다.

노화와 관계돼 일어나는 수십 수백 가지의 생리적 변화, 대략 신체에 모든 장기의 모든 기능이 약화된다는 내용으로 채워진 그 강의가 끝날 무렵 나는 손을 들어 질문을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분이 본래 내과 의였으므로 그런 시각을 가졌던 것 같다. 좀 더 공부를 해 보니, 나이가 들며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

어느 날부터 하나둘 보이는 흰머리에 당황하다 생각해 보니 나도 어느덧 흰머리가 나는 게 이상하지 않은 나이가 됐다.

열린마당

‘JEJU IoT’ 전통시장 이용에 편리함 더하다



이 경 화

제주도 정보정책과

전통시장은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등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서 인기가 많지만, 여전히 처음 방문한 사람들에게는 복잡하고, 위치 찾기도 어려우며,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을 찾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와이파이(JEJU IoT)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제주동문시장과 서귀포매일을 레시장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올해 공공와이파이(와이파이6)와 융합한 사물인터넷(IOT) 시범서비스로 ‘JEJU IoT’를 만들고, 제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동문시장과 매일올레시장에 전통시장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제주형 하천정비 모델에 대한 기대



이 수 민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올해 중국 허난성에서 617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수많은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2020년 여름은 1973년 이후 역대 가장 긴 장마철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기후변화로 인한 장래의 강수 홍수량 증가정도’에 따르면 2050년 홍수량은 현재보다 11.8% 유역에 따라 최대 50.4%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치수안전도가 점차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이며, 현 홍수방어 체계를 넘어서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예측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사회 각층에서 제주도 하천의 원형 보존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자연환경과 생태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정비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 적극 찬성할 일이다.

현재 논의 중인 제주형 하천정비 표준모델이 하루 빨리 수립돼 환경보존과 치수대책을 모두 만족하고 진일보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논쟁이 없는 효과적인 재난 대응 체계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Jeju Natural Landscape (제주자연조경) featuring landscaping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car purchase services (차량 구매 고객님의 한해서 블랙박스 설치해 드립니다!) with details on financing and insurance.